

‘자폭 국힘’ ‘어대명 민주’... 전당대회 흥행 카드가 없다

국힘,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율 40.47% 그쳐 결선투표 가능성
민주, 투표율 31.62% 저조...대표 이재명 91.7% 압도적 1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어젠다 부족과 흥행 실패로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나친 후보간 '팀 킬' 수준의 내분으로 자중지란에 빠졌고, 더불어민주당도 '어치피 당 대표'는 이재명(어대명) 분위기 속에서 흥행 요소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당대회를 통해 당원과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당 지지율도 높여야 하는 여야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로 22대 국회 상반기 원동력을 만들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차기 대권을 안정적으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2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차기 지도부를 뽑는 7·23 전당대회 당일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율이 40.47%를 기록했다. 지난 20일 오후 5시까지 이틀간 진행된 모바일 투표 마감 결과, 당원 선거인단 84만1614명 중 34만61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지난해 3·8 전당대회 때 모바일 투표율(47.51%)보다 7.04%p(포인트) 낮은 수치다.

모바일 투표 첫날인 전날 투표율은 29.98%였다.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단은 모바일 투표를 하지 못했던 21~22일 ARS로 투표할 수 있지만 초반 투표율 저조로 ARS 투표율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전당대회 투표율(55.1%)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애초 한동훈·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 등 유명 정치인이 대거 포진해 흥행을 기대했지만 후보간 과도한 비방전이 펼쳐지면서 투표를 포기하거나 보류한 당원들이 늘어났을 것이라 분석이 제기된다.

국민의당 전당대회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21~22일 진행된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원 투표 80%·일반 국민 여론조사 20%를 반영한다. 오는 23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경선의 경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낮은 투표율 탓에 과반 득표자가 없을 가능성도 커지면서 결선 투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정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이다.

민주당은 21일 현재 제주와 인천·강원·대구·경북 등 지역별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2만 4645명의 시·도별 선거인수 중 3만9409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31.62%에 그치고 있다. 당 대표 투표에서는 이재명(91.70%), 김두관(7.19%), 김지수(1.11%) 순이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정봉주(21.67%), 김병주(16.17%), 전현희(13.76%), 김민석(12.59%), 이연주(12.29%), 한준호(10.41%), 강선우(6.99%), 민형배(6.13%) 순으로 표를 얻고 있다.

지역별 투표율을 보면 21일 강원에서 열린 합동 연설회에서 2만7049명 중 투표자수는 5911명으로 투표율은 21.85%에 그쳤다.

이날 대구는 총선거인수 1만1123명 중 5809명이 투표해 참여율은 52.23%, 경북은 총투표자수 1만2149명 중 5807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47.80%였다.

지난 20일 첫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및 지역대회였던 제주에서 총선거인수 3만1921명 중 온라인 투표자수 5869명 그쳐 투표참여율은 18.39%였다. 또 이날 인천도 총선거인수 4만2403명 중 투표자수는 1만6013명으로 투표참여율은 37.76%였다.

작년 2022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총선거인수 117만9933명 중 유효투표자수는 43만7633명을 기록해 총투표율은 37.09%였다. 올해 전당대회가 치러진 지역별로 살펴봐도 제주 28.62%, 인천 41.26%, 강원 36.43%, 경북 57.81%, 대구 59.21%였다. 전당대회 초기이기 때문에 변수가 많지만 이들 지역 비율만 놓고 봤을 때 지역에 따라 작년 전당대회에 비해 많게는 10% 이상 투표율이 낮고 대부분 지역 투표율이 저조해 민주당의 전당대회 흥행은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이다.

한편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총선거인수는 124만2240명이며, 광주는 10만2925명, 전남 15만6843명이다. 지난 2022년 전당대회에서 광주 투표율은 34.18%, 전남은 37.52%로 전국 평균을 살짝 웃돌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지역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등 폭염이 계속된 21일 북구 오룡동 시민의 숲 물놀이장을 찾은 가족단위 피서객들이 물놀이하며 더위를 이겨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도깨비 장마 뒤 살인적 폭염...구례 35도

짧은시간 강한 장마비가 쏟아지던 바로 폭염이 이어지는 현상이 광주·전남지역에도 반복되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장마전선이 북상함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22일부터 장맛비는 소강상태를 보이겠지만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21일 예보했다.

22일 광주·전남 낮 최고기온은 29~34도에 분포하고 23일에는 29~33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1일 오전까지 전남에는 최대 9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지만, 장맛비가 소강상태에 들자마자 광주·전남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됐다.

이날 새벽 강한 비로 인해 전남소방본부에는 21일 구조 1건, 인명대피 1건, 주택침수 7건, 토사유출 1건 등 27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새벽 4시께 영암군 삼호읍에선 도로가 침수되면서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3명이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고, 주민 5명이 대피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상청은 21일 오후 4시를 기해 곡성·구례·화순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를 폭염경보로 격상했다. 이날 곡성 석곡의 최고기온은 34.8도, 구례 35도, 화순 능주 33.6도를 기록했다. 폭우가 쏟아지면 태양열로 데워진 지열이 누그러져 폭염도 다소 주춤 했지만, 올해는 폭우 뒤 바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하루 새 폭우 뒤 바로 폭염이 이어지는 이유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되면서 강한 햇볕에 더해 남쪽에서 뜨겁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검찰, 김전희 여사 12시간 비공개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전희 여사가 재임 중인 대통령 부인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 측과 사전에 조사 시기와 방식 등을 협의 해왔다.

이어 주말인 지난 20일 김 여사를 서초동 검찰

청사가 아닌 서울 시내 제3의 장소에서 약 12시간에 걸쳐 비공개 조사하고 하루 뒤 공개했다.

조사에는 각 사건을 담당하는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김승호 형사1부장과 소속 검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관할 내 정부 보안 청사로 소환했다"고 밝혔지만, 현직 영부인에 대한 예우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풀이

된다.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지난 12일 한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개인 의견임으로 전제로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런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게 되면 부정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검찰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였고, 협의 과정에서 김 여사도 출석 의지를 밝히면서 제3의 장소를 택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시민 생명 위협하는 전통키보드	▶6면
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파리 입성	▶18면
호남의 누정 원림 - 화순 영벽정	▶22면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전남!

공공주도 주민참여 개발, 이익공유 모델 확산으로 글로벌 해상풍력 허브로 도약하겠습니다!

공공주도 해상풍력 개발사업 확산

계획 용량 **30GW**

- 신안 11GW (8.2GW)
- 영광 6.6GW
- 여수 5.5GW
- 진도 3.2GW
- 고흥 1.2GW
- 완도 1.2GW
- 해남 0.9GW

신안 진적화단지 지정, 공공주도 단지개발로 세계적 발전단지 조성

주민참여 이익공유 모델 마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개발사업 이익공유 및 주민수용성 확보

해상풍력 산업클러스터 조성

목포신항, 해남 화원산단 연계 부품업체, 연관기업 집적화 국내 최대 해상풍력 공급망 구축

전문인력 양성·지방소멸 극복

산·학·관 협력 맞춤형 인력양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